KOSDAQ | 기술하드웨어와장비

유일에너테크 (340930)

전기차 캐즘 영향으로 단기 실적 부담 지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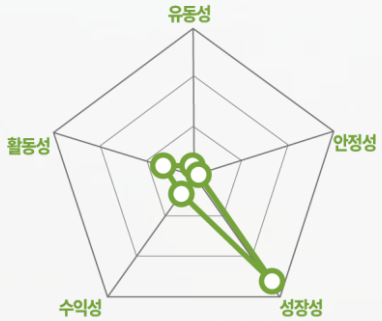
체크포인트

- 유일에너테크는 이차전지 조립 공정 중 노칭·스태킹 공정에 특화된 장비 업체. 파우치형 배터리 양산 공정에서 축적한 레퍼런스를 기반으로 각형 및 ESS 조립 공정으로 적용 범위를 점진적으로 확대
- 동사는 과거 SK온 중심의 고객 구조에서 벗어나, 베르코어(프랑스), 모로우 배터리(노르웨이) 등 신규 셀 업체에 장비 공급 이력을 확보하며 고객 포트폴리오를 분산시킴. 2024년 ESS용 LFP 배터리 조립라인(98억 원) 수주와 과거 솔라엣지향 ESS 장비 납품 레퍼런스를 기반으로, EV 외 응용처 다변화 노력 중
- 전기차 캐즘 영향으로 주요 셀 메이커들의 설비 투자 집행이 지연되며 신규 장비 발주 환경이 위축된 가운데, 일부 프로젝트의 설치·검수 일정 이연 영향으로 2025년 연간 매출액은 514억 원(YoY -13.9%), 영업이익은 -88억 원(YoY 적자지속) 추정. 단기 실적 개선과 주가 모멘텀은 제한적인 국면

주가 및 주요이벤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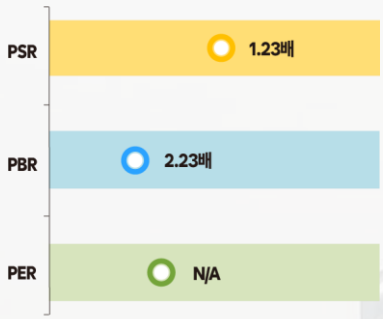


재무지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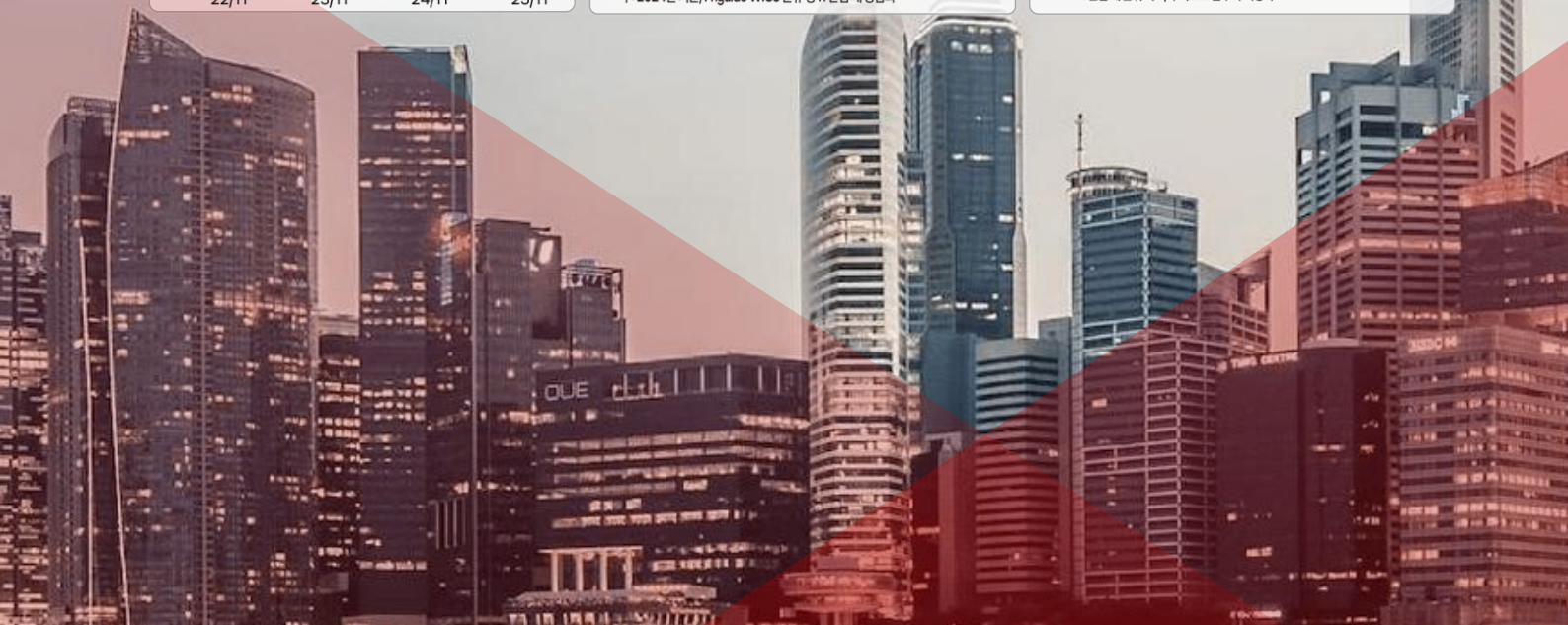


주: 2024년 기준, Fnguide WICS 분류 상 IT산업 내 등급화

밸류에이션 지표



주: PSR, PER은 2024년 기준, PBR은 4Q24 기준, Fnguide WICS 분류상 IT산업 내 순위 비교, 우측으로 갈수록 저평가



유일에너테크 (340930)

KOSDAQ
기술하드웨어와장비

Analyst 이나연 lny1008@kirs.or.kr
RA 권지승 rnjswltmd32@kirs.or.kr

노칭·스태킹 특화 이차전지 조립 장비 업체

유일에너테크는 이차전지 조립 공정 중 노칭·스태킹 공정에 특화된 이차전지 장비 업체. 파우치형 배터리 양산 공정에서 초기 레퍼런스를 축적한 이후, 각형 배터리 및 ESS 조립 공정으로 적용 범위를 점진적으로 확대해 왔음. 노칭 공정은 전극 정밀 가공, 스태킹 공정은 적층 정합성과 생산성 확보가 핵심 경쟁 요소로 작용하는 영역으로, 동사는 해당 공정에서의 장비 안정성과 레퍼런스를 기반으로 글로벌 셀 업체향 공급 이력을 확보

고객·응용처 다변화 진행 중: 유럽 셀 업체 및 ESS 확대

과거 동사의 매출 구조는 SK온 중심의 단일 고객 의존도가 높았으나, 최근에는 고객 포트폴리오 분산이 진행되는 단계. 특히 유럽 시장에서 베르코어(프랑스), 모로우 배터리(노르웨이) 등 차세대 배터리 셀 업체를 중심으로 조립 공정 장비 공급 이력이 축적되고 있음. 응용처 측면에서도 EV 중심의 수요 구조에서 ESS로 다변화 시도 중. 과거 솔라엣지향 ESS 장비 납품 레퍼런스를 보유하고 있으며, 2024년 7월 ESS용 LFP 배터리 조립라인 수주(98억 원)를 확보함. AI 데이터센터 증설, 전력망 안정화 투자, 신재생에너지 연계 수요 확대 등으로 ESS 설비 투자는 중기적으로 구조적 성장 흐름에 있으며, 이는 EV 수요 변동성을 보완할 것으로 기대됨

전기차 캐즘 영향으로 단기 실적 부담 지속

전기차 캐즘 영향으로 주요 셀 메이커들의 설비 투자 집행이 지연되며 신규 장비 발주 환경이 전반적으로 위축되고 있음. 일부 프로젝트의 설치·검수 일정이 하반기로 이연되며 실적 변동성이 확대된 상황으로, 2025년 연간 매출액은 514억 원으로 전년 대비 13.9% 감소하고, 영업이익은 -88억 원으로 적자 기조가 지속될 것으로 추정. 전방 산업 조정 국면이 이어지는 가운데, 단기 실적과 주가 모멘텀은 제한적인 국면

Forecast earnings & Valuation

	2021	2022	2023	2024	2025F
매출액(억원)	294	475	385	597	514
YoY(%)	-50.3	61.7	-18.9	55.0	-13.9
영업이익(억원)	-58	-193	-101	-167	-88
OP 마진(%)	-19.8	-40.6	-26.3	-28.0	-17.0
지배주주순이익(억원)	-24	221	-132	-287	-182
EPS(원)	-66	606	-344	-731	-464
YoY(%)	적전	흑전	적전	적지	적지
PER(배)	N/A	7.8	N/A	N/A	N/A
PSR(배)	6.8	3.6	3.3	0.8	1.4
EV/EBITDA(배)	N/A	N/A	N/A	N/A	N/A
PBR(배)	4.4	2.6	1.9	1.1	4.1
ROE(%)	-7.1	39.4	-19.5	-51.6	-56.6
배당수익률(%)	0.0	0.0	0.0	0.0	0.0

자료: 한국IR협의회 기업리서치센터

Company Data

현재주가 (12/17)		1,781원
52주 최고가		2,830원
52주 최저가		1,009원
KOSDAQ (12/17)		911.07p
자본금		171억원
시가총액		609억원
액면가		500원
발행주식수		53백만주
일평균 거래량 (60일)		365만주
일평균 거래액 (60일)		90억원
외국인지분율		0.44%
주요주주	정연길 외 2 인	32.51%

Price & Relative Performance



Stock Data

주가수익률(%)	1개월	6개월	12개월
절대주가	-23.7	49.8	47.8
상대주가	-24.4	27.6	12.6

참고

1) 표지 재무지표에서 안정성 지표는 '부채비율', 성장성 지표는 '매출액 증가율', 수익성 지표는 '영업이익률', 활동성지표는 '순운전자본회전율,' 유동성지표는 '유동비율'임. 2) 표지 밸류에이션 지표 차트는 해당 산업군내 동사의 상대적 밸류에이션 수준을 표시. 우측으로 갈수록 밸류에이션 매력도 높음.

기업 개요

1 기업 개요 및 연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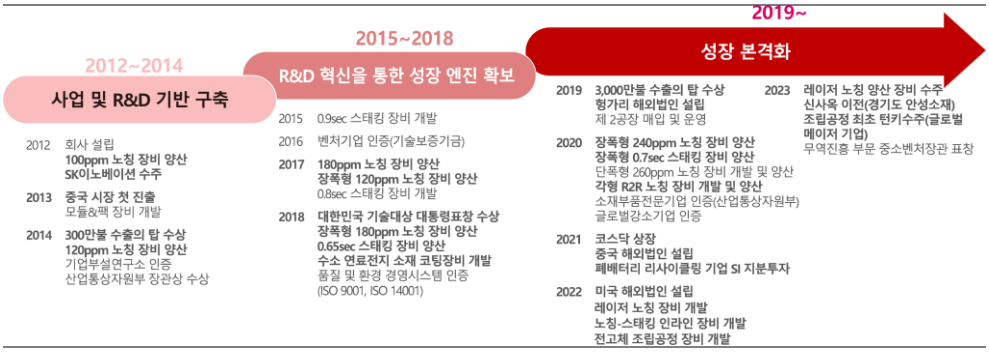
유일에너테크는 2차전지 조립 공정 장비를 생산하는 기업

유일에너테크는 전기차 및 ESS(Energy Storage System)에 필요한 2차전지 제조를 위한 노칭, 스태킹, 탭 웰딩 장비를 생산하는 기업이다. 2012년 4월 설립된 유일에너테크는 설립 당시 SK이노베이션과 함께 노칭 장비를 개발 및 생산했으며, 이후 스태킹, 탭 웰딩 장비를 개발하면서, 2차전지 조립 공정에서의 장비 포트폴리오를 다각화했다. 설립 초기에는 대부분의 매출액이 "SK이노베이션(현재는 사업부 분할을 통해 SK온 설립)" 단일 고객사로부터 발생했으나, 현재는 삼성SDI, 모로우 배터리(Morrow Batteries, 노르웨이), 베르코어(Verkor, 프랑스) 등으로 고객사를 확대한 상황이다.

유일에너테크는 고객사 확대와 성장성을 바탕으로 2021년 2월 코스닥 시장에 상장했다. 상장 이후 레이저 노칭 장비, 노칭-스태킹 인라인 장비, 전고체 조립공정 장비 등을 꾸준히 개발했고, 2024년 연간 매출액 597억원으로 역대 최대 실적을 달성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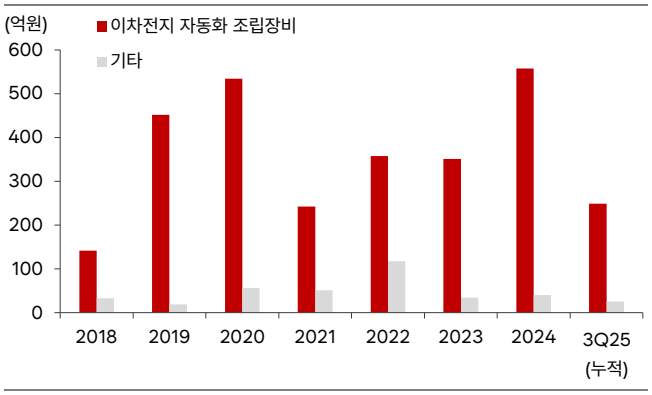
유일에너테크는 2024년 연간 597억원(YoY +55.0%)을 달성했다. 주요 사업부별 매출액은 노칭, 스태킹, 탭 웰딩 장비 등이 포함된 이차전지 자동화 조립장비 557억원(YoY +58.7%), 공급된 장비별로 모델 교체에 따른 대응과 스페어 부품을 공급하는 기타 부문 40억원(YoY +17.0%)으로 구성된다.

주요 연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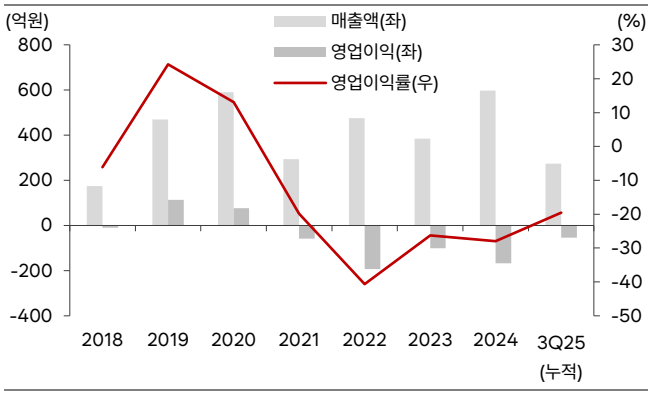
자료: 유일에너테크, 한국IR협의회 기업리서치센터

사업부문별 매출액 추이



자료: 유일에너테크, 한국IR협의회 기업리서치센터

매출액 및 영업이익, 영업이익률 추이



자료: 유일에너테크, 한국IR협의회 기업리서치센터

유일에너테크의 주요 종속기업으로는 'YOUIL ENERGY TECH HUNGARY KFT(지분율 100.0%)', 'YEN CHENG YOUIL ENERGY TECH CO., LTD(지분율 100.0%)', 'YOUIL ENERGY TECH USA INC.(지분율 100.0%)'이 있다. 각각 헝가리, 중국, 미국 현지 생산 법인이다. 해외 생산 법인의 2024년 합산 매출액은 24억원(YoY +14.3%)으로 유일에너테크 연간 매출액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5% 미만으로 아직까지 미미한 수준이다.

2 주요 제품

2차전지 조립 공정에서 노칭, 스태킹 장비가 주력

유일에너테크는 2차전지 제조를 위한 노칭(Notching), 스태킹(Stacking), 탭 웰딩(Tab Welding) 장비를 생산하고 있다. 해당 장비들은 2차전지 제조 공정 중 '전극 공정-조립 공정-활성화(화성) 공정' 가운데 조립 공정에 해당한다. 조립 공정은 전극 공정에서 제조된 극판 사이에 분리막을 삽입하고, 셀 형태(파우치형, 원통형, 각형 등)에 따라 이를 조립하는 단계이다. 셀 형태에 따라 공정 방식과 요구 장비가 상이하며, 현재 유일에너테크는 파우치형 및 각형 배터리용 조립 장비를 중심으로 제품을 생산하고 있다.

유일에너테크의 핵심 장비는 노칭, 스태킹, 탭 웰딩 장비로 구성된다. 노칭 장비는 양극 및 음극 전극의 탭(Tab)을 성형한 후, 전극을 Sheet 형태로 절삭하는 공정을 수행한다. 이후 스태킹 장비는 노칭 공정을 통해 제작된 Sheet 형태의 양극/음극 극판과 분리막을 정밀하게 적층해 하나의 셀 구조를 형성한다. 탭 웰딩 공정은 스태킹을 통해 적층이 완료된 셀에서 양극 및 음극 전극의 탭을 집전체 또는 외부 단자에 접합해 전기적 연결을 완성하는 단계이다.

이를 종합하면, 유일에너테크의 조립 공정 장비는 단계별로 '노칭-전극 형상 완성', '스태킹-셀 구조 완성', '탭 웰딩-전기적 연결 완성'이라는 역할을 수행하며, 셀 조립 공정 전반의 핵심 장비를 생산하고 있다.

또한 유일에너테크의 매출에서 과반 이상을 차지하는 SK온이 파우치형 배터리를 중심으로 생산하고 있다는 점에서, 동사의 주력 장비 역시 파우치형 배터리에 적용되는 노칭, 스태킹, 탭 웰딩 장비에 집중되어 왔다. 이에 따라 과거에는 파우치형 배터리용 조립 장비에서 대부분의 매출이 발생했다.

다만, 동사는 배터리 셀 폼팩터의 다변화 추세에 대응하기 위해 2022년 각형 배터리에 적용 가능한 레이저 노칭기 및 노칭-스태킹 인라인 장비를 개발하며 제품 포트폴리오 확장을 추진했다. 이러한 기술 개발 성과를 바탕으로, 2022년 6월 유럽에서 2차전지 관련 컨소시엄 총괄 사업을 수행하는 RJC Holdings Corporation으로부터 155억 원 규모의 각형 2차전지 조립공정 제조장비를 수주하며 각형 배터리 장비 시장에 본격 진입했다. 해당 장비는 유럽의 메이저 배터리 셀 제조사를 최종 고객사로 납품된 것으로 알려졌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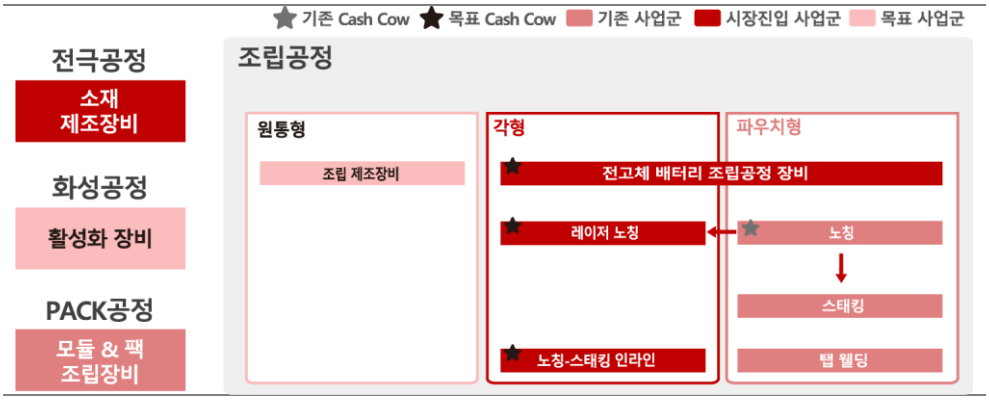
이후에도 각형 및 레이저 노칭기 장비 등 신규 장비에 대한 수주는 이어졌다. 2023년 4월에는 RENERA-Enertech(유럽)로부터 레이저 노칭기를 포함한 136억 원 규모의 수주를 확보했으며, 2023년 11월에는 VERKOR(유럽)로부터 61억 원 규모의 레이저 노칭 장비 수주를 따내는 데 성공했다. 이를 통해 유일에너테크는 기존 파우치형 중심의 사업 구조에서 벗어나, 각형 및 신규 노칭 장비의 확장을 성공적으로 진행하고 있다.

유일에너테크 주요 장비 라인업



자료: 유일에너테크, 한국IR협의회 기업리서치센터

유일에너테크 2차전지 공정 장비 라인업 및 확장 계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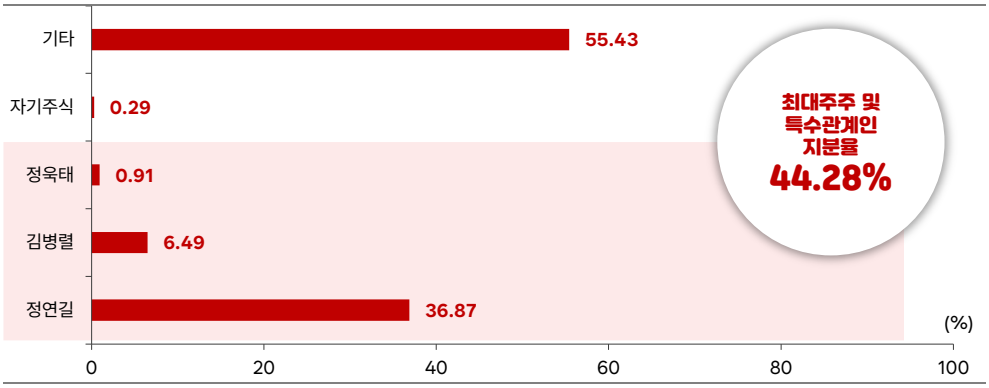


자료: 유일에너테크, 한국IR협의회 기업리서치센터

3 주주 구성

2025년 9월 말 기준 유일에너테크의 총 발행주식수는 34,204,450주이다. 최대주주인 정연길 대표이사는 12,612,450주로 36.87%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다. 2대 주주인 김병렬 사내이사는 6.49%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으며, 최대주주 및 특수관계인 합산 지분율은 44.28%를 차지하고 있다. 자기주식은 0.29%, 그 외 기타 주주는 55.43%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다.

주주 구성(3Q25말 기준)



자료: 유일에너테크, 한국IR협의회 기업리서치센터

산업 현황

1 캐즘 단계인 2차전지, ESS 시장을 중심으로 성장 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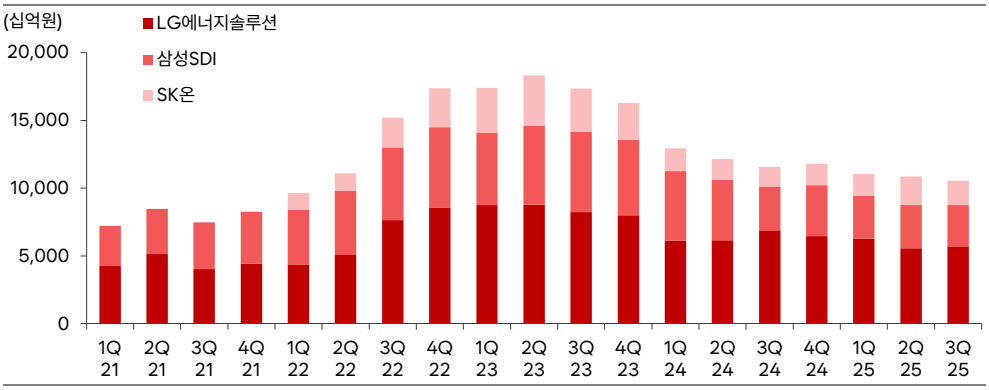
ESS용 배터리는 성장 전망

현재 2차전지 산업은 여전히 캐즘(Chasm)으로 불리는 일시적인 수요 정체 구간을 지나고 있다. 이러한 수요 위축에는 중국산 배터리의 과잉 공급도 큰 축이지만, 수요 측면에서도 위축을 보이고 있다. 특히 미국이 기존 인플레이션 감축법인 IRA 대신 통과시킨 OBBBA(One Big Beautiful Bill Act; 하나의 크고 아름다운 법안)로 인해 더욱 수요 위축이 심화되고 있다. OBBBA는 기존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의 핵심이었던 전기차 구매 세액공제를 조기 종료(2025년 9월 말) 시키면서, 전기차 판매 보조금이 없어졌다. 이에 대응하기 위해 미국 내 주요 자동차 기업들은 자체적으로 할인이나 보조금을 지급하며 경쟁하고 있으나, 보조금 축소 선례가 있던 유럽 시장과 같이 전기차 수요 둔화는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전망된다.

전기차 시장의 캐즘 우려 속에서 에너지 저장 장치(ESS) 시장은 2차전지 산업의 훈풍을 불러오고 있다. 과거 ESS 수요는 태양광, 풍력 등 신재생 에너지 발전 비중 확대에 따라 전력망 안정성을 유지하기 위해 주로 사용되었다. 하지만, 최근 AI 데이터 센터의 증가로 대규모 예비 전력 확보가 필수적이게 되면서 산업용 ESS 수요가 크게 증가하고 있다. ESS 시장은 전기차와 달리 에너지 밀도보다는 수명, 안전성, 저렴한 비용이 가장 중요하며, 이에 따라 각형 LFP 배터리를 중심으로 시장이 확대될 것으로 전망된다. 현재 ESS 시장의 70% 이상이 LFP 배터리가 차지하고 있으며, 이러한 추세는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SNE Research에 따르면 ESS 에너지 저장 용량은 2024년 235 GWh에서 연평균 9.2% 성장하여 2035년 618 GWh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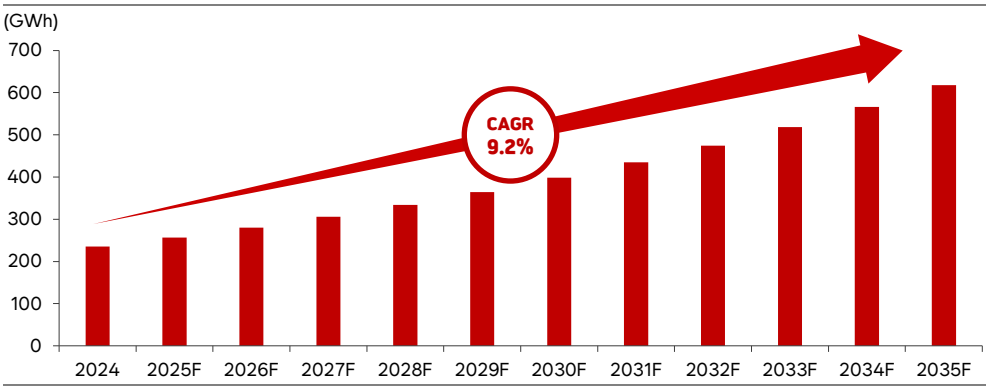
국내 배터리 3사의 분기별 매출액은 2Q23에 정점을 기록한 이후 전기차 캐즘으로 인해 감소하고 있으며, 현재는 하향 안정화된 상황이다. 하지만, 전기차 수요 둔화가 여전한 가운데, 최근 미국 인플레이션 감축법의 전기차 보조금 혜택이 사라지면서, 당분간 배터리 3사의 전기차 배터리 부문 매출액이 하락할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다. LG에너지솔루션, 삼성SDI는 현재 ESS용 LFP 배터리 수주를 확보하면서, 전기차 캐즘에 대응하려고 하고 있으며, SK온도 LFP 배터리 개발을 완료하고 ESS용 LFP 배터리 생산 라인 구축을 계획하면서 ESS 시장 진출을 준비하고 있다.

배터리 3사 분기별 매출액



주: SK온은 1Q22부터 분기 공시 시작.
자료: FnGuide, 한국IR협의회 기업리서치센터

글로벌 ESS 시장 전망



자료: SNE Research, 한국IR협의회 기업리서치센터

2 2차전지 조립 공정의 변화

2차전지 조립 공정에서 노칭과 스태킹 장비의 고도화가 지속 중

2차전지 제조의 조립 공정은 전극 공정을 거친 양극 및 음극 극판과 분리막 등을 가공해 셀 형태를 완성하는 단계로, 최근 배터리 제조사들이 에너지 밀도 극대화와 생산성 확보를 목표로 함에 따라 그 중요성이 확대되고 있다. 특히 조립 공정의 핵심인 노칭과 스태킹 단계에서 기술 혁신이 활발히 일어나고 있으며, 해당 공정을 수행하는 장비의 기술력은 곧 제조사의 경쟁력과 직결되는 모습이다. 구체적으로 조립 공정은 노칭, 스태킹, 탭 웰딩, 패키징의 순서로 진행되는데, 이 과정에서 수율과 효율을 높이는 것이 장비 기술의 핵심 과제로 부상하고 있다.

전극 탭을 절단하는 노칭 공정은 기존의 물리적 접촉 방식인 금형 프레스 노칭에서 레이저 노칭으로 빠르게 대체되고 있다. 레이저 방식은 비접촉식이므로 금형 마모에 따른 유지보수 비용과 불량 발생을 획기적으로 줄여주며, 소프트웨어 제어를 통해 다양한 배터리 규격에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또한 기존 프레스 방식 대비 절단 속도가 25% 이상 빠르고 전극에 가해지는 장력 또한 20% 미만으로 감소해, 생산 속도 향상과 극판 손상 방지라는 점에서 생산성을 향상시키고 있다.

배터리 내부 공간 효율을 결정하는 적층 공정은 빈 공간이 발생하는 기존 와인딩 방식에서 스태킹 방식으로 진화하고 있다. 스태킹은 양극, 분리막, 음극을 정밀하게 쌓아 올려 에너지 밀도를 극대화하는 방식으로, 공정이 복잡하고 고도의 정밀도가 요구되지만 Z-Stacking 등의 기술 발전으로 생산성 문제를 해소해 나가고 있다. 과거 주로 사용되던 와인딩 방식은 젤리롤 형태라 각형 캔 모서리에 빈 공간(Dead Space)이 생기고 충방전 시 변형이 올 수 있었던 반면, 스태킹 방식은 이러한 공간 낭비를 최소화하여 배터리 용량을 크게 늘릴 수 있다.

최근 4680 원통형 배터리 및 대형 각형 배터리 등 폼팩터가 다변화되면서 조립 장비의 수요는 더욱 증가하는 추세다. 4680 배터리의 다중 탭 구현을 위한 정밀 레이저 커팅과 대형 각형 배터리의 밀도 향상을 위한 스태킹 공법 적용이 확대되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4680 배터리는 전극 끝부분 전체를 탭으로 활용하는 탭 리스 구조를 채택하고 있어 정밀하고 연속적인 레이저 커팅 기술이 필수적이며, 이에 따라 관련 장비 기업들은 공정 확대에 따른 구조적 수혜를 입을 것으로 전망된다.

배터리 제조사 주요 폼팩터 및 제조 기술

배터리 제조사	국가명	주요 폼팩터	관련 제조 기술
SK On	한국	파우치형 → 각형/원통형 확대 중	Z-Stack, 프레스/레이저 노칭
LG에너지솔루션	한국	파우치형, 원통형 → 각형 확대 중	Lami-Stack, 어드밴스드 Z-Stack
삼성SDI	한국	각형, 원통형	Z-Stack(각형), 와인딩(원통형)
CATL	중국	각형	와인딩 → 스태킹 전환 중
Panasonic	일본	원통형	와인딩 방식
VERKOR	프랑스	파우치형	스태킹, 레이저 노칭
Morrow Batteries	노르웨이	각형	와인딩/스태킹, 레이저 노칭

자료: 각 사, 언론사 종합, 한국IR협의회 기업리서치센터

프레스 노칭 장비, 레이저 노칭 장비 차이

프레스 노칭 장비	레이저 노칭 장비
절단면과 칼날이 지속 접촉	절단면과 직접 접촉하지 않음
주기적인 수선과 부품 교체 필요	주기적인 수선 필요하지 않음
금형 변화 시 칼날 교체 필요	변화된 금형에 맞춰 생산 가능
상대적으로 장력이 높아 파단이 많이 발생	프레스 대비 장력이 낮아 파단 발생 확률 낮음
진동에 취약해 2층 이상 설비 구성 어려움	진동이 적어 장소 구애 낮음
가공 중 이물 발생	가공 중 이물 발생 거의 없음

자료: 언론사 종합, 한국IR협의회 기업리서치센터

투자포인트

1 셀메이커의 설비 투자가 재개 시 노칭&스태킹 장비 수혜 가능

2차전지 조립 공정 핵심 장비인 노칭&스태킹 공정에 특화

유일에너테크는 이차전지 조립 공정 중 노칭·스태킹이라는 핵심 공정에 특화된 장비 업체로, 전방 산업의 사이클 변화에도 불구하고 기술적 필요성이 유지되는 포지션을 확보하고 있다. 노칭과 스태킹은 전극 손상, 정렬 오차, 진동 누적 등이 곧바로 수율 저하와 안전 이슈로 연결되는 공정으로, 설비 투자 환경이 위축되는 국면에서도 대체 가능성이 낮은 핵심 공정 장비에 해당한다.

특히 동사의 노칭·스태킹 기술은 파우치형 배터리 양산 공정에서 축적된 레퍼런스를 기반으로 발전해 왔으며, 이후 각형 및 ESS용 조립 공정으로의 적용 범위를 점진적으로 확장하고 있다. 파우치형 배터리는 공정 안정성 확보가 가장 까다로운 폼팩터로, 고속 이송 과정에서의 전극 손상 억제, 미세 정렬 오차 제어, 진동 관리 역량이 동시에 요구된다. 동사는 이러한 고난도 양산 환경에서 반복적인 공정 검증을 거치며 노칭·스태킹 핵심 기술을 내재화해 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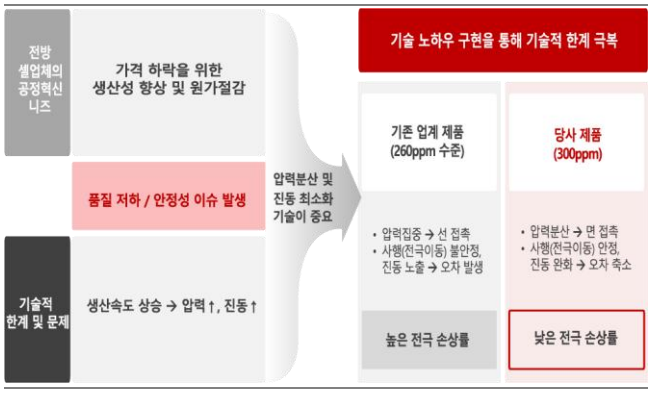
전방 셀 업체들이 중장기 원가 경쟁력 확보를 위해 공정 고속화와 고적층화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노칭·스태킹 공정의 기술 난이도는 오히려 높아지는 구조다. 생산 속도 상향은 압력 증가와 진동 확대를 동반하며, 적층률 상승은 전극 중량 증가로 인해 오차 누적 가능성을 높인다. 이로 인해 해당 공정에서는 단순한 속도 개선이 아닌, 고속·고적층 환경에서도 안정성과 품질을 유지할 수 있는 기계적 설계와 공정 제어 역량이 핵심 경쟁 요소로 작용한다.

유일에너테크는 이러한 구조적 한계를 기계적 설계와 공정 제어 기술의 결합을 통해 해결해 왔다. 노칭 장비의 경우, 고속 Feeding 과정에서 발생하는 전극 손상과 쏠림 현상을 억제하기 위해 전극 텐션 자동 조정 및 압력 분산 구조를 적용했으며, 이를 통해 업계 평균(260ppm 수준)을 상회하는 약 300ppm 수준의 고속 양산 환경에서도 공정 안정성과 낮은 전극 손상률을 동시에 확보했다. 이는 단순한 속도 경쟁이 아닌, 고속화 과정에서 필연적으로 발생하는 진동·압력 문제를 구조적으로 해소한 결과다.

스태킹 공정에서도 차별화는 명확하다. 고에너지 밀도 배터리로 갈수록 적층률이 상승하고 전극 중량이 증가하면서, 기존 사선 이동 방식 스태킹 구조에서는 오차 누적과 수율 저하가 불가피해진다. 동사는 Z-스태킹 구조를 통해 전극 접촉 오차를 최소화하고, 고속·고적층 환경에서도 안정적인 정렬을 유지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현했다. 이를 통해 생산성 향상과 수율 유지라는 상충되는 요구를 동시에 충족하는 구조를 확보했다.

이러한 기술적 경쟁력은 실적이 본격적으로 확대되던 구간에서 이미 검증된 바 있다. 셀메이커의 설비 투자가 본격화됐던 시기, 동사의 이차전지 자동화 조립장비 매출은 2021년 242억 원에서 2022~2023년 300억 원 중반대 수준을 유지하다 2024년 557억 원으로 확대되며, 노칭·스태킹 중심의 핵심 공정 장비가 전방 CAPEX 집행 국면에서 실질적인 매출로 연결될 수 있음을 입증했다. 2025년에는 전기차 캐즘의 영향으로 실적 둔화가 전망되지만, 배터리 투자 사이클이 재개되면, 기술력을 바탕으로 성장을 이어 나갈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노칭 장비 특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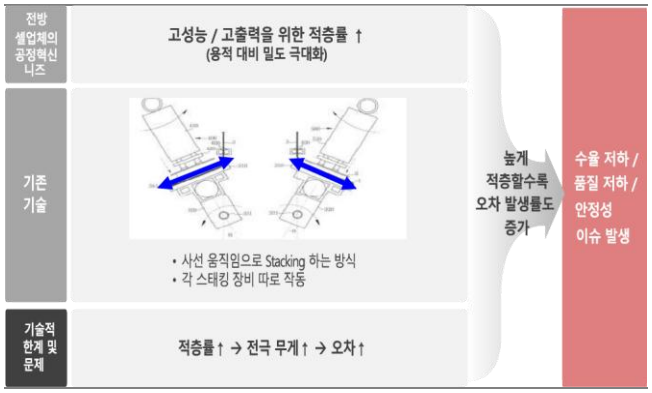
자료: 유일에너테크, 한국IR협의회 기업리서치센터

노칭 장비 핵심 기술



자료: 유일에너테크, 한국IR협의회 기업리서치센터

스태킹 장비 특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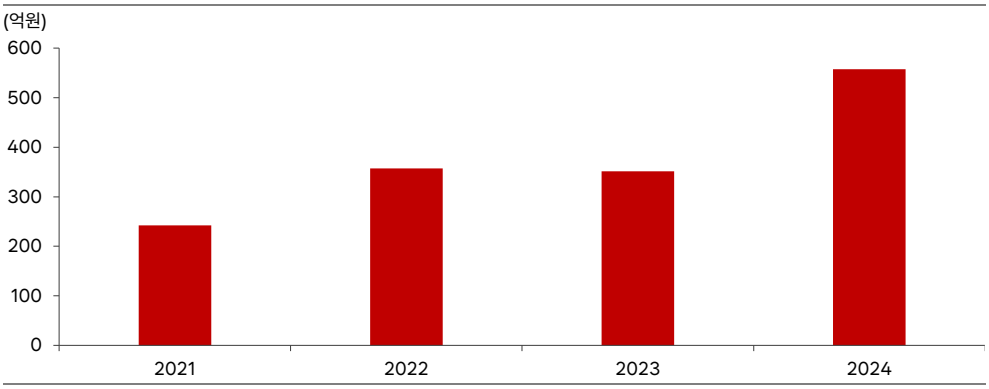
자료: 유일에너테크, 한국IR협의회 기업리서치센터

스태킹 장비 핵심 기술



자료: 유일에너테크, 한국IR협의회 기업리서치센터

유일에너테크 이차전지 자동화 조립 장비 매출 추이



자료: 유일에너테크, 한국IR협의회 기업리서치센터

SK온 투자 지연 국면에서도 고객·지역·응용처 다변화가 진행 중

SK온의 투자 지연에도 매출처 다변화 진행 중

유일에너테크는 핵심 고객사의 설비 투자(CAPEX)에 실적이 연동되는 구조를 갖고 있어, 최근 고객사의 보수적인 투자 기조에 따른 단기 수주 가시성이 제한적인 상황이다. 2024년부터 시작된 전기차 캐즘(Chasm) 영향이 본격화되며 전방 셀 메이커들의 신규 설비 투자 집행이 전반적으로 지연되고 있으며, 특히 주력 고객사인 SK온은 향후 설비 투자 규모를 기존 대비 절반 수준으로 축소하겠다는 계획을 밝힌 바 있다. 이에 따라 북미 전기차 수요 회복과 정책 불확실성이 해소되기 전까지는 대규모 발주 재개 시점을 보수적으로 바라볼 필요가 있다.

다만 이러한 환경 변화 속에서 동사는 고객 포트폴리오를 지역 및 응용처 기준으로 점진적으로 분산시키는 방향으로 대응하고 있다. 과거 매출의 80% 가까이 SK온에 집중돼 있었던 것과 달리, 최근에는 SK온 매출 비중이 20%내외 수준으로 크게 낮아지며 특정 고객사에 대한 의존도가 완화된 모습이다. 단순히 주력 고객사의 투자 지연에 따른 결과라기보다는, 유럽 및 해외 고객사 확대를 통해 포트폴리오를 조정한 결과로 해석된다.

유럽 시장에서는 모로우 배터리(Morrow Batteries), 베르코어(Verkor) 등 차세대 배터리 셀 업체를 중심으로 조립 공정 장비 공급 이력이 축적되고 있다. 베르코어(프랑스)는 동사가 레이저 노칭 장비를 최초로 적용한 고객사로, 2024년 약 16GWh 수준의 생산능력을 시작으로 2030년까지 약 50GWh로 CAPA 확대를 계획하고 있다. 동사의 장비는 현재 2개 라인에 투입을 완료하였으며, 2026년 이후 양산 라인 확대에 따른 추가 장비 수요 가능성이 존재한다.

또한, 동사는 노르웨이 기반의 신규 셀 업체인 모로우 배터리에 동사의 각형 배터리 스태킹 인라인 장비를 파일럿 라인(약 1GWh 규모)에 공급한 이력을 보유하고 있다. 모로우는 파일럿 라인을 시작으로 단계적인 생산능력 확장(2028년 약 43GWh 규모)을 추진하고 있으며 스태킹 인라인 장비는 노칭, 스태킹 공정을 하나로 합쳐진 것으로 1GWh당 수주 금액이 기존 대비 유의미하게 높은 구조로, 향후 증설 구간에서 매출 기여도가 확대될 가능성이 있다.

이와 같이 동사는 EV 수요 변동성에 노출된 단일 고객 구조에서 벗어나, 유럽 지역의 신규 셀 업체들을 중심으로 고객 포트폴리오를 다변화하고 있으며, 유럽의 배터리 내재화 및 중장기 CAPEX 흐름에 연동되는 수주 기반을 점진적으로 확보하고 있다.

한편, 동사는 EV 시장과 직접적으로 연동되지 않는 비EV 응용처에서도 신규 수요를 확보하고 있다. 응용처 측면에서는 ESS(Energy Storage System) 시장이 새로운 수요 축으로 부각되고 있다. 동사는 2024년 7월 ESS용 LFP 배터리 조립라인에 대해 98억 원 규모의 수주를 공시하며, EV 중심의 수요 구조에서 점진적으로 응용처를 확장하고 있다. ESS는 EV 대비 배터리 규격 변화가 상대적으로 완만하고, 조립 공정 구조 역시 EV와 유사해 기존 노칭·스태킹 및 조립 기술을 그대로 활용할 수 있는 영역이다.

동사는 2023년 솔라엣지(SolarEdge)에 약 55억 원 규모의 ESS용 조립 공정 장비를 납품한 이력을 보유하고 있으며, 해당 레퍼런스를 기반으로 최근 미국 ESS 관련 업체들과의 협업 논의도 진행 중인 것으로 파악된다. 이는 ESS 조립 공정에서도 동사의 장비가 양산 레퍼런스로 검증됐음을 보여주는 사례다.

미국을 중심으로 AI 데이터센터 증설, 전력망 안정화 투자, 신재생에너지 연계 저장 수요가 동시에 확대되면서 중기적인 ESS 설비 투자는 EV 사이클과는 다른 궤적의 성장 동력으로 작용하고 있다. 이러한 환경에서 ESS는 전기차 수요 변동성에 대한 완충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응용처로, 동사의 고객 및 매출 구조 다변화를 뒷받침하는 영역으로 평가된다.

유일에너테크 고객 포트폴리오 다변화



자료: 유일에너테크, 한국IR협의회 기업리서치센터

유럽 고객사 캐파 확장 계획

구분	소재지	초기 CAPA	중기 CAPA 계획	목표 시점
베르코어 (Verkor)	프랑스	16 GWh	~50 GWh	2030년
모로우 배터리 (Morrow Batteries)	노르웨이	1 GWh (파일럿)	~43 GWh	2028년

자료: 각 사, 언론사 종합, 한국IR협의회 기업리서치센터

실적 추이 및 전망

1 2025년 실적 리뷰 및 전망

2025년은 실적 감소 불가피

2025년 3분기 누적 기준 유일에너테크의 실적은 매출액 274억 원(YoY -35.8%), 영업이익 -54억 원(YoY 적자 지속)을 기록했다. 전기차 수요 둔화와 주요 셀 메이커들의 설비 투자 집행 지연이 장기화되며 신규 장비 발주 환경이 위축된 가운데, 전사 매출 규모와 수익성 모두 보수적인 흐름을 보였다

특히 동사의 주력 사업인 이차전지 자동화 조립장비 부문은 고객사의 설비 투자 일정 조정과 프로젝트 집행 속도 둔화의 영향을 직접적으로 받았다. 동사는 노칭·스태킹·조립 공정 장비를 중심으로 수주 이후 장비 반입, 설치, 검수 및 공정 안착을 거쳐 매출을 인식하는 구조를 가지고 있어, 일부 프로젝트의 현장 일정이 하반기로 이연되며, 3분기 누적 실적에 반영되지 못한 부분이 존재한 것으로 판단된다. 실제로 2025년 3분기 단일 분기 기준 이차전지 자동화 조립장비 매출은 12억 원으로 집계돼 전년 동기 대비 85%, 전분기 대비 93% 감소했다

매출 구조 측면에서는 해외 비중이 절대적으로 높은 모습이다. 2025년 3분기 누적 기준 내수 매출은 5억 원에 그친 반면, 해외 매출은 269억 원으로 전체 매출의 대부분을 차지했다. 이는 동사의 수주 구조가 국내보다는 해외 셀 메이커 및 프로젝트 중심으로 형성돼 있으며, 전방 산업의 투자 사이클 변화가 해외 고객사의 설비 투자 일정 조정으로 직결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2025년 3분기 누적 기준 유일에너테크의 비용 구조는 매출 감소 국면에서 점진적인 개선 흐름을 보였다. 매출원가는 250억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41% 감소하며 매출원가율은 98.7%에서 91.4%로 하락해 원가 통제 노력이 일부 반영된 결과로 해석된다. 이에 따라 매출총이익은 6억 원에서 24억 원으로 확대되며, 매출총이익률 역시 1.3%에서 8.6%로 개선됐다.

판관비는 77억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25% 감소했으나, 매출 감소 영향으로 판관비율은 23.9%에서 28.2%로 상승했다. 다만 동사는 설비 투자 축소 국면에 대응해 생산 인프라 슬림화를 병행하고 있으며, 이미 3공장 매각을 완료했고 2공장 역시 매각을 추진 중이다. 이러한 고정비 축소 노력은 단기적으로는 손익 개선 효과가 제한적일 수 있으나, 향후 수주 회복 국면에서 고정비 부담을 낮추는 구조적 비용 완충 장치로 작용할 전망이다.

2025년 4분기에는 3분기 중 이연됐던 일부 프로젝트의 매출 인식이 진행되며 분기 실적은 제한적으로 회복 흐름을 보일 것으로 전망된다. 2025년 3분기 말 기준 수주잔고는 631억 원으로, 장비 설치·검수 일정에 따라 매출 인식 시점이 조정되는 산업 특성을 감안할 때 일부 프로젝트가 4분기에 반영될 가능성이 있다. 이에 따라 2025년 4분기 매출액은 240억 원(YoY +41.2%), 영업이익은 -34억 원(YoY 적자지속)으로 추정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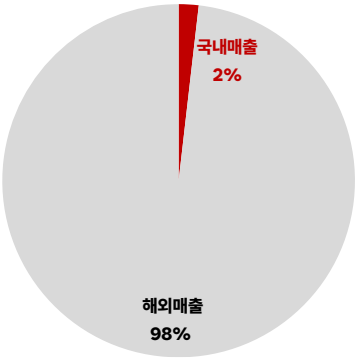
연간 기준으로는 전기차 캐즘 영향에 따른 설비 투자 지연이 지속되며 실적 감소가 불가피할 전망이다. 2025년 연간 매출액은 514억 원으로 전년 대비 13.9% 감소하고, 영업이익은 -88억 원으로 적자 기조가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비용 측면에서는 매출원가가 497억 원(YoY -23.7%), 판관비가 104억 원(YoY -7.1%)으로 추정돼 외형 축소에 맞춘 비용 절감 노력이 일부 반영될 전망이다. 다만 매출 감소 폭이 비용 절감 폭을 상회하면서 연간 수익성 회복은 제한적인 수준에 그칠 가능성이 높다.

한편 핵심 고객사인 SK온이 설비 투자 규모를 기존 대비 축소하겠다는 계획을 밝힌 점은 단기 실적 가시성에 부담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다만 이를 구조적인 경쟁력 훼손으로 해석하기보다는 전방 산업 사이클 조정에 따른 일시적 실적 둔화 국면으로 보는 것이 합리적이다. 동사는 노칭·스태킹 등 핵심 공정 장비 경쟁력을 유지하고 있으며, 유럽 셀 업체(베르코어, 모로우 배터리), 비EV 특수 목적 배터리, ESS 응용처 등으로 고객 및 수요 기반을 점진적으로 다변화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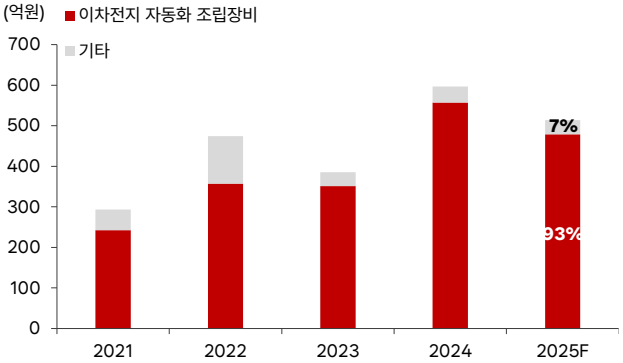
이와 함께 동사는 신규 수주 확보를 위해 매출 다변화를 병행하고 있다. 과거 약 100억 원 규모의 장비를 공급한 러시아 레네라에너테크(Rosatom 계열)와 연내 약 200억 원 규모의 추가 계약을 준비 중이며, 이는 비EV 특수 목적 배터리 영역에서의 중기 수주 확대 가능성을 시사한다. 또한 AI 데이터센터 확산과 CF100 정책을 배경으로 ESS 수요가 구조적으로 증가하는 미국 시장에서도 과거 ESS 장비 납품 레퍼런스를 바탕으로 현지 기업들과 초기 협업 논의를 진행 중으로, 단기 실적 반영보다는 중기적인 수주 파이프라인 확장 관점에서 의미를 갖는 단계로 판단된다.

유일에너테크 매출 구성(3Q25 누적 기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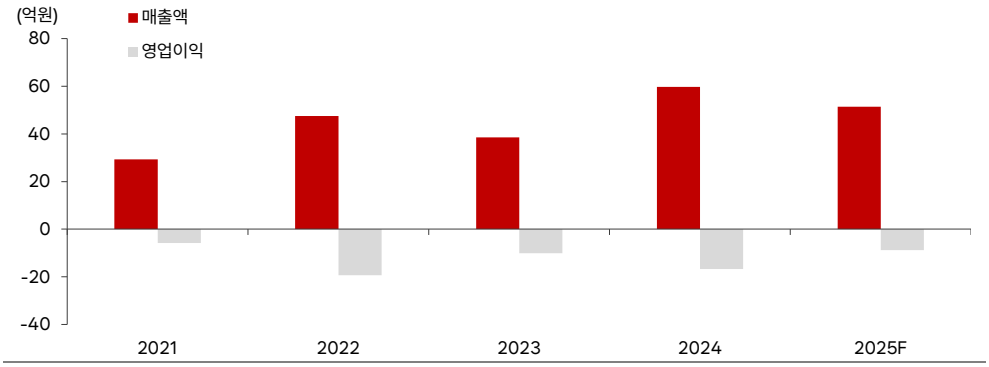
자료: 유일에너테크, 한국IR협의회 기업리서치센터

유일에너테크 제품별 매출 추이 및 전망



자료: 유일에너테크, 한국IR협의회 기업리서치센터

유일에너테크 연간 실적 추이 및 전망



자료: 유일에너테크, 한국IR협의회 기업리서치센터

연간 실적 테이블 (단위: 십억 원, %)

	2021	2022	2023	2024	2025F
매출액	29.4	47.5	38.5	59.7	**51.4**
이차전지 자동화 조립장비	24.2	35.7	35.1	55.7	**47.9**
기타	5.1	11.7	3.4	4.0	**3.5**
영업이익	-5.8	-19.3	-10.1	-16.7	**-8.8**
영업이익률	-19.8	-40.6	-26.3	-28.0	**-17.0**
당기순이익	-2.4	22.1	-13.2	-28.7	**-18.2**
당기순이익률	-8.0	46.6	-34.3	-48.1	**-35.5**
YoY					
매출액	-50.3	61.7	-18.9	55.0	**-13.9**
이차전지 자동화 조립장비	-54.6	47.4	-1.7	58.7	**-14.1**
기타	-9.0	129.2	-71.1	17.0	**-10.9**
영업이익	적전	적지	적지	적지	**적지**
당기순이익	적전	흑전	적전	적지	**적지**

자료: 유일에너테크, 한국IR협의회 기업리서치센터

Valuation

1 2025F PBR 4.1

캐즘 우려와 영업적자로 큰 폭의 조정을 받은 상황

2025년 12월 17일 기준 유일에너테크의 시가총액은 609억 원이다. 전기차 및 중대형 이차전지 산업의 캐즘(일시적 성장 정체) 우려와 영업적자 지속으로 인해, 동사의 주가는 2023년 4월 고점(9,257원) 대비 현재(12월 17일 종가 1,781원)까지 약 80% 수준의 조정을 받은 상태다.

2025년 기준으로도 전방 산업 조정과 주요 고객사의 설비 투자 축소 영향이 이어지며 영업적자가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이익 기반 지표(PER)를 활용한 밸류에이션 적용에는 한계가 있다. 실제로 2024~2025F 기준 동사의 PER은 적자 지속으로 산출이 불가능한 상태로, 본 보고서에서는 PBR을 중심으로 한 자산가치 기반 상대 비교 방식을 통해 밸류에이션 수준을 판단한다.

2025년 예상 기준 유일에너테크의 PBR은 4.1배로, 하나기술(3.5배) 대비 소폭 높은 수준이며 엠플러스(1.1배), 필에너지(2024년 기준 2.0배) 대비로는 높은 밸류에이션에 위치해 있다. 코스닥 시장 전체의 2025F PBR이 약 3.0배 수준임을 감안하면, 동사의 밸류에이션은 시장 평균을 상회하는 구간으로 평가된다.

다만 2024년 PBR 1.1배에서 2025년 4.1배로의 상승은 주가 재평가에 따른 멀티플 확장으로 보기보다는, 전기차 캐즘 영향으로 영업적자가 지속되며 순손실이 누적된 결과 자기자본이 감소한 데 따른 산술적 상승 효과가 크게 작용한 것으로 판단된다. 2025년에도 영업적자 기조가 이어질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현 시점의 멀티플 수준을 정당화하기 위해서는 전방 설비 투자 회복과 함께 실적 정상화에 대한 가시성이 선행적으로 확인될 필요가 있다.

종합하면, 유일에너테크는 단기 실적 둔화 국면이 지속되고 있어 현 구간에서는 장기적인 접근이 요구된다. 향후 밸류에이션 재평가는 주요 고객사의 설비 투자 재개 여부, 수주 확대에 따른 매출 회복 속도, 손익 구조 개선이 가시화되는 시점에서 단계적으로 가능할 것으로 판단된다.

유일에너테크 피어 테이블 (단위: 십억 원, 배)

	종가	시가총액	매출액		PER		PBR	
			2024	2025F	2024	2025F	2024	2025F
코스피	4,056	3,251,627	3,728,338	3,041,474	11.3	13.8	0.8	1.3
코스닥	911	493,116	334,118	107,177	196.2	39.4	1.5	3
하나기술	32,850	263	94	95	N/A	N/A	1.4	3.5
유일에너테크	**1,781**	**61**	**60**	**51**	**N/A**	**N/A**	**1.1**	**4.1**
필에너지	12,980	279	285	N/A	19.7	N/A	2	N/A
엠플러스	13,150	160	129	N/A	8.6	N/A	1.1	N/A

주: 유일에너테크 실적은 한국IR협의회 추정치, 그 외 기업들의 실적은 시장 컨센서스 참고, 주가는 12월 17일 기준
자료: 한국IR협의회 기업리서치센터

리스크 요인

1 엠플러스 관련 특허 소송에 따른 법적·영업 리스크

유일에너테크는 경쟁사 엠플러스와 노칭·스태킹 장비 관련 특허 분쟁을 진행해 왔으며, 최근 대법원 판결을 통해 일부 특허의 유효성 및 침해 여부에 대한 법적 판단이 확정됐다. 이에 따라 향후 손해배상 책임이 발생할 가능성은 존재한다. 다만 엠플러스가 제기한 약 700억 원 규모의 손해배상은 청구 금액 기준으로, 실제 배상액은 침해 기간, 적용 매출 규모, 기술 기여도, 로열티율 등을 종합해 별도의 손해배상 소송 절차를 통해 산정될 예정이다. 국내 유사 특허 침해 사례를 감안할 때 청구액 전액이 인정되는 경우는 제한적이며, 현 시점에서 재무 구조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준의 손해배상 부담으로 연결될 가능성은 낮은 것으로 판단된다.

다만 본 소송 이슈는 단기적인 비용 발생 가능성뿐 아니라, 경쟁사와의 기술 분쟁이 지속될 경우 향후 신규 수주 과정에서 고객사의 보수적인 의사결정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간접적인 영업 리스크로 작용할 여지가 있다. 특히 노칭·스태킹 장비는 고객 레퍼런스와 기술 신뢰도가 중요한 영역인 만큼, 법적 분쟁이 장기화될 경우 시장 내 경쟁 구도와 수주 환경에 불확실성을 야기할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

2 유상증자에 따른 주주가치 희석 및 오버행 리스크

유일에너테크는 전방 산업 조정 국면에서의 유동성 확보와 재무 안정성 강화를 목적으로 유상증자를 단행한 바 있다. 전기차 캐즘 영향으로 실적 회복 시점이 지연되는 상황에서, 외부 자본을 통한 재무 안전판 확보라는 측면에서는 방어적인 재무 전략으로 평가된다. 다만 기존 주주 관점에서는 신주 발행에 따른 지분 희석과 주당 가치 하락 가능성이 불가피한 리스크 요인으로 작용한다. 특히 실적 정상화 이전에 유상증자가 진행됐다는 점에서, 단기적으로는 주가 수급 부담과 밸류에이션 디스카운트 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

또한 유상증자를 통해 유입된 신규 투자자 물량은 보호 예수 해제 시점 이후 잠재적인 오버행(overhang)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전방 산업 회복이 지연되고 실적 가시성이 충분히 확보되지 않은 상태에서 보호예수 해제 물량이 출회될 경우, 단기 주가 변동성이 확대될 가능성도 존재한다.

유상증자 자금의 사용 목적 역시 단기간 내 실적 개선으로 직결되기보다는, 캐즘 국면을 버티기 위한 운영자금 및 재무 구조 보완 성격이 강한 것으로 판단된다.

유상증자는 단기적으로는 주주가치 희석과 수급 부담이라는 리스크를 수반하나, 전방 산업 회복 이전까지의 재무 안정성과 존속 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한 방어적 선택으로 해석된다. 향후 주주가치 회복 여부는 유상증자 자체보다는, 고객사 설비 투자 재개와 수주 확대를 통한 실적 정상화가 가시화되는 시점에 결정될 것으로 판단된다.

포괄손익계산서

(억원)	2021	2022	2023	2024	2025F
매출액	294	475	385	597	514
증가율(%)	-50.3	61.7	-18.9	55.0	-13.9
매출원가	315	605	367	652	497
매출원가율(%)	107.1	127.4	95.3	109.2	96.7
매출총이익	-21	-130	18	-55	17
매출이익률(%)	-7.3	-27.4	4.6	-9.2	3.2
판매관리비	37	63	119	112	104
판관비율(%)	12.6	13.3	30.9	18.8	20.2
EBITDA	-54	-188	-87	-146	-72
EBITDA 이익률(%)	-18.4	-39.6	-22.6	-24.4	-14.0
증가율(%)	적전	적지	적지	적지	적지
영업이익	-58	-193	-101	-167	-88
영업이익률(%)	-19.8	-40.6	-26.3	-28.0	-17.0
증가율(%)	적전	적지	적지	적지	적지
영업외손익	16	9	-54	-38	-35
금융수익	1	42	55	75	10
금융비용	1	40	99	74	60
기타영업외손익	16	8	-11	-38	15
종속/관계기업관련손익	-1	423	23	-80	-60
세전계속사업이익	-43	240	-132	-285	-182
증가율(%)	적전	흑전	적전	적지	적지
법인세비용	-19	18	0	2	0
계속사업이익	-24	221	-132	-287	-182
중단사업이익	0	0	0	0	0
당기순이익	-24	221	-132	-287	-182
당기순이익률(%)	-8.0	46.6	-34.3	-48.1	-35.5
증가율(%)	적전	흑전	적전	적지	적지
지배주주지분 순이익	-24	221	-132	-287	-182

재무상태표

(억원)	2021	2022	2023	2024	2025F
유동자산	645	623	678	758	680
현금성자산	12	76	82	7	34
단기투자자산	1	15	2	6	5
매출채권	54	67	109	122	61
재고자산	428	275	392	410	410
기타유동자산	150	189	93	214	171
비유동자산	244	937	1,067	929	922
유형자산	99	407	526	479	463
무형자산	4	7	10	0	0
투자자산	99	522	493	413	421
기타비유동자산	42	1	38	37	38
자산총계	889	1,560	1,745	1,688	1,603
유동부채	406	721	814	1,142	1,242
단기차입금	99	93	182	164	164
매입채무	117	91	147	294	176
기타유동부채	190	537	485	684	902
비유동부채	19	179	233	132	129
사채	0	0	0	0	0
장기차입금	0	178	223	113	113
기타비유동부채	19	1	10	19	16
부채총계	426	900	1,047	1,274	1,371
지배주주지분	463	660	698	414	231
자본금	53	53	57	171	171
자본잉여금	318	319	491	379	379
자본조정 등	5	-10	-14	-11	-11
기타포괄이익누계액	-0	-0	0	1	1
이익잉여금	86	298	163	-126	-308
자본총계	463	660	698	414	231

현금흐름표

(억원)	2021	2022	2023	2024	2025F
영업활동으로인한현금흐름	-239	-42	-2	-35	-118
당기순이익	-24	221	-132	-287	-182
유형자산 상각비	3	4	12	18	16
무형자산 상각비	1	1	2	3	0
외환손익	0	6	2	1	0
운전자본의감소(증가)	-241	-80	11	18	67
기타	22	-194	103	212	-19
투자활동으로인한현금흐름	-120	-307	-125	-7	73
투자자산의 감소(증가)	-97	0	55	0	72
유형자산의 감소	0	0	0	0	0
유형자산의 증가(CAPEX)	-19	-306	-177	-4	0
기타	-4	-1	-3	-3	1
재무활동으로인한현금흐름	339	414	133	-34	71
차입금의 증가(감소)	60	137	134	-18	104
사채의증가(감소)	0	300	0	8	30
자본의 증가	279	0	0	0	0
배당금	0	0	0	0	0
기타	0	-23	-1	-24	-63
기타현금흐름	0	-1	-0	0	0
현금의증가(감소)	-21	64	6	-76	27
기초현금	33	12	76	82	7
기말현금	12	76	82	7	34

주: 2025년 예상치는 유상증자 반영되지 않은 수치(유상증자 납입기일은 2025년 12월 29일)

주요투자지표

	2021	2022	2023	2024	2025F
P/E(배)	N/A	7.8	N/A	N/A	N/A
P/B(배)	4.4	2.6	1.9	1.1	4.1
P/S(배)	6.8	3.6	3.3	0.8	1.4
EV/EBITDA(배)	N/A	N/A	N/A	N/A	N/A
배당수익률(%)	0.0	0.0	0.0	0.0	0.0
EPS(원)	-66	606	-344	-731	-464
BPS(원)	1,266	1,807	1,779	1,054	436
SPS(원)	820	1,299	1,001	1,520	1,306
DPS(원)	0	0	0	0	0
수익성(%)					
ROE	-7.1	39.4	-19.5	-51.6	-56.6
ROA	-3.6	18.1	-8.0	-16.7	-11.1
ROIC	-14.6	-26.2	-14.9	-26.8	-17.0
안정성(%)					
유동비율	158.6	86.4	83.4	66.4	54.8
부채비율	92.0	136.2	149.9	307.9	592.8
순차입금비율	26.5	74.8	70.7	129.2	277.8
이자보상배율	-43.4	-5.7	-2.3	-2.9	-1.4
활동성(%)					
총자산회전율	0.5	0.4	0.2	0.3	0.3
매출채권회전율	4.9	7.8	4.4	5.2	5.6
재고자산회전율	1.2	1.4	1.2	1.5	1.3

최근 3개월간 한국거래소 시장경보제도 지정 여부

시장경보제도란?

한국거래소 시장감시위원회는 투기적이거나 불공정거래 개연성이 있는 종목 또는 주가가 비정상적으로 급등한 종목에 대해 투자자주의 환기 등을 통해 불공정거래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한 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시장경보제도는 「투자주의종목 투자경고종목 투자위험종목」의 단계를 거쳐 이루어지게 됩니다.

※관련근거: 시장감시규정 제5조의2, 제5조의3 및 시장감시규정 시행세칙 제3조~제3조의 7

종목명	투자주의종목	투자경고종목	투자위험종목
유일에너테크	O	X	X

2025년 11월 28일 기준 투자주의종목으로 지정된 바 있음.

발간 History

발간일	제목
2025.12.22	유일에너테크-전기차 캐즘 영향으로 단기 실적 부담 지속
2022.12.08	유일에너테크-2차전지 장비에서 폐배터리 리사이클링까지

Compliance notice

본 보고서는 한국거래소, 한국예탁결제원과 한국증권금융이 공동으로 출연한 한국IR협의회 산하 독립 (리서치) 조직인 기업리서치센터가 작성한 기업분석 보고서입니다. 본 자료는 투자자들에게 국내 상장기업에 대한 양질의 투자정보 제공 및 건전한 투자문화 정착을 위해 무상으로 작성되었습니다.

- 당사 리서치센터는 본 자료를 제3자에게 사전 제공한 사실이 없습니다.
- 본 자료를 작성한 애널리스트는 자료작성일 현재 해당 종목과 재산적 이해관계가 없습니다.
- 본 자료를 작성한 애널리스트와 그 배우자 등 관계자는 자료 작성일 현재 조사분석 대상법인의 금융투자상품 및 권리를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 본 자료는 중소형 기업 소개를 위해 작성되었으며, 매수 및 매도 추천 의견은 포함하고 있지 않습니다.
- 본 자료에 게재된 내용은 애널리스트의 의견을 정확하게 반영하고 있으며, 외부의 부당한 압력이나 간섭 없이 신의 성실하게 작성되었음을 확인합니다.
- 본 자료는 투자자들의 투자판단에 참고가 되는 정보제공을 목적으로 배포되는 자료입니다. 본 자료에 수록된 내용은 자료제공일 현재 시점의 당사 리서치센터의 추정치로서 오차가 발생할 수 있으며 정확성이나 완벽성은 보장하지 않습니다.
- 본 조사자료는 투자 참고 자료로만 활용하시기 바라며, 어떠한 경우에도 투자자의 투자 결과에 대한 법적 책임 소재의 증빙자료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
- 본 조사자료의 지적재산권은 당사에 있으므로, 당사의 허락 없이 무단 복제 및 배포할 수 없습니다.
- 본 자료는 텔레그램에서 "한국IR협의회(https://t.me/kirsofficial)" 채널을 추가하시어 보고서 발간 소식을 안내받으실 수 있습니다.
- 한국IR협의회가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 'IRTV'에서 1) 애널리스트가 직접 취재한 기업탐방으로 CEO인터뷰 등이 있는 '小中한탐방'과 2) 기업보고서 심층해설방송인 '小中한 리포트 가치보기'를 보실 수 있습니다.